

국보관

목조범천·제석천입상

중요문화재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에 만들어진 한 쌍의 목조상으로 범천과 제석천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범천과 제석천은 원래 인도 신화의 신이었지만 수호신으로서 불교에 흡수되었습니다. 연꽃을 들고 있는 범천은 인도의 창조신인 브라흐마에서 유래했습니다. 갑옷을 몸에 걸치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제석천은 초기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천계의 신으로 특히 번개와 전쟁을 관장하는 신 인드라를 바탕으로 한 존재입니다.

2구의 상 모두 13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서금당(西金堂)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식적으로는 위로 휘어지고 정교한 장식이 달린 신발의 끝부분이나 옷깃과 소매부리를 따라 물결 모양으로 접힌 주름 등이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에서 12세기 송나라의 양식을 일본식으로 재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